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육사(六關) 거꾸로 기르나 길하니, 호랑이가 전일(專一)하게 노려보듯이 하며 그 하는 뜻이 지속되면 허물이 없으리라.[顚頤 虎視耽耽, 其欲逐逐无咎. (전이 호시탐탐 기욕축축 무구)]

'정전' 에서는 '호시(虎視)'를 위엄을 기르는 것으로 보고, '본의'에서는 '전일하게 내려다보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離)는 거북을 상징하고 또 호랑이를 상징한다. 이(頤)괘는 이(離)괘를 닮았다. 거북은 껍질 외부가 단단하기 때문이고, 호랑이는 문채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안으로 자신을 기르는 것으로는 거북만한 것이 없고, 밖에서 먹이를 구하는 것으로는 호랑이만한 것이 없다. 그 때문에 이(頤)의 초구와 육사는 두 가지 것을 상으로 취하였다. '시(視)' 역시 이(離)괘에 속하니 눈[目]의 상이다. 호랑이는 항상 아래로 내려다본다. '탐탐(耽耽)' 은 전일한 모양이고 '축축(逐逐)' 은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四)가 초(初)에 대하여 현자에게 몸을 낮춰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호랑이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한 뒤에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전일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먹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되어 쉬지 않을 수있다. 이와 같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윗자리에 거하며 아랫사람에게 구하는 도이다. 현자에게 몸을 낮추려는 마음이 전일하지 않다면 현자는 즐거이 선(善)으로써 고하려 하지 않는다.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약간 얻기도 전에 그만두게 된다. 정설(程說)이 좋기는 하지만 위엄을 세우려는 것이 윗자리에 거하여 아랫사람에게 구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주자는 '전일하게 내려다보는 것' 으로 해석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징은 주자의 이러한 의미를 조금도 남김없이 밝혔다.

거북과 호랑이의 상(象)에 대하여 주자가 문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괘에서 거북을 말한 경우는 이(離)괘를 바로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괘가 감추어져 있다. '턱을 떨군다'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미 분명하게 말한 경우이다.

호랑이 대해서는 도리어 "상은 모른다" 고 하였다. 오징이 이 두 가지 상을 설명한 것은 또한 주자가 밝히지 않은 것을 밝힌 것이다. 대개 오징의 설이 괘·효·상의 범례에 대해서 발명한 것이 많다. 스스로 문왕과 주공의 마음에 가까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여 선유(先儒)와 차이를 두고자 애썼으므로 왕왕 견강부회하거나 기교를 부리는 병폐 또한 불(佛)에 빠진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분별해야 한다.

또 살펴보니, 면재(勉齋) 황씨(黃氏)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頤)의여섯 효는 다만 전(顚)과 불(拂)두 글자일 뿐이다. 밑으로 기름을 구하는 것이 전(顚)이고,위로 구하는 것이 불(拂)이다. 육이는 초효에 이웃하고 또 위로 구하므로 '전이(顚頤)' 가 한 구절이 되고 '불경우구이(拂經于丘頤)' 가 한구절이 되 '정흉(征凶)' 은 곧 점사(占辭)이다. "오징은 또 그 의미를 미루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머리를 거꾸로 내리는 것을 전(顚)이라 하니 이는 밑에서 부양해 주기를 구한다는 의미이다. 손을 들어 위로 접근하는 것을 불(拂)이라 하니 이는 위에서 부양해 주기를 구한다는 뜻이다. 위 아래 두 양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르고, 네 음이 비(比)와 응(應)의 관계에 따라 부양을 받는다. 초구는 이(二)에 이웃하면서 사(四)에 응하고, 육이와 육사는 모두 아래로부터의 부양에 의지하므로 '전(顚)' 을 상(象)으로 한다. 상구는 오(五)에 이웃하면서 삼(三)에 응하고, 육오와 육삼은 모두 위로부터의 부양글 의지하므로 '불(拂)' 이 상(象)이 된다. '경(經)' 은 거친다는 뜻이다. 육이는 상구에 접근하여 상구의 부양을 요구하나 상구는 육이의 응이 아니므로 반드시 육오를 거친 뒤에야 상구에 이르게 된다. 육오는 비록 육이의 응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상구의 부양에 의지하니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 부양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가면 흉하다.' 육삼도 상구의 부양을 받지만 상구가 기르는 대상은 현명한 자이다. 육삼은 음유(陰柔)이고 중정(中正)하지 못하니 어질지 못하면서 녹봉을 도둑질하는 자이다. 그 때문에 바르게 일을 주관하더라도 흉하다. "이로써 보면 이 괘의 여섯 효의 전(顚)과 불(拂)의 상(象)이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오징의 설에도 미진한 점이 있다. 이 괘가 이(頤)인 까닭은 상구 때문이다. 육이는 초효에 이웃하면서 밑에서 부양해 주기를 구하나 초효는 아래 있어 다만 스스로를 기를 수 있을 뿐이고 스스로를 기르는 도리 역시 잘못되어 흉하니 어찌 다른 이를 기를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육이는 비록 밑에서 부양해 주기를 바라지만 부양받을 수 없으므로 상구를 우러러보면서 자기를 길러줄 수 있는 주체로 여긴다. 이에 아래를 버리고 위로 올라 육오를 거쳐 상구에게 부양해 주기를 요구한다. 육오와 육이는 응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모두 음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의리가 없다. 그러니 어찌 지원을 받아 상구의 기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자는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상관없이 집에 들어가면 투기를 받는다. 양자강과 타수 지역에서는 적처가 양첩과 함께 가지 않으니 이것이 육이가 가면 무리를 잃어 흉한 이유이다. 그 때문에 '상전' 에 "' 육이가 가서 흉한 것' 은 가는데 동류를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정부인과 첩은 동류이므로 정부인이 잉첩과 동행하지 않으면 잉첩은 동류를 잃게 된다.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오가 육이를 위해 상구로부터 양육을 구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육삼과 상구는 상응하는 자리에 거하고 상응하는 의리가 있어 상구에게 부양을 요구하는 것은 바르다. 그러나 육삼은 음유(陰柔)이고 중정(中正)하지 못하여 상구의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응하는 대상이 바르더라도 흉하다. 지위를 도적질해서 바르게 일을 주관한 뒤에 흉한 것은 아니다.

論 語 解 說(26)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7편 술이(述 而)

제30장

진[陳]나라의 사패[司敗]가 예공이 예를 아느냐고 물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예를 압니다."공자가 물러나자 무마기[巫馬期]에게 읍하고 다가와서 말하기를 "내가들으니 군자는 편당적[偏黨的]으로 굴지 않는다던데 군자도 역시 편당적으로 굽니까. 노군은 오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해 오고 동성인데도 오 맹자라 불렀습니다. 그런 노군이 예를 안다면 누군들 예를 모르겠습니까?" 두마기가 그 이야기를 고했더니. 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다행스럽다. 조금만 과오가 있어도 남이 반드시 알고 있으니."

[원문]

陳司敗問하되 昭公이 知禮乎니이까 孔子曰 知禮시니라 孔子退커늘 揖巫馬期而進之曰 吾聞君子는 不黨이라하거니 君子도 亦黨乎아 君取於吳하니 爲同姓이라 謂之吳孟子라하니 君而知禮면 孰不知禮리오 巫馬期以告하되 子曰 丘也幸이로다 苟有過어든 人必知之런져.

[진사패문하되 소공이 지예호니이까 공자 왈 지예시니라 공자퇴커늘 읍두마기이진지왈 오문군자는 불당이라하거니 군자도 역당호아 군취어오하니 위동성이라 위지오맹자라하니 군이지예면 집불지예리오 무마기이고하되 자왈 구야행이로다 구유과어든 인필지지런져.]

[이해]

사패[司敗]는 법[法]을 다루는 진[陳]의 관직명이고 소공은 노나라의 국군[國君] 희조[姬稠]. 무마[巫馬]는 복성[復姓]. 이름은 시. 자는 자기로 공자의 제자이며 공자[孔子]보다 서른 살이 연소하였다. 노와 오는 모두 희성[姬姓] 국가라 예법 상으로 통혼 하는 것이 법도에 맞지 않는 일지만 공자의 입장은 자기나라 임금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가 아니므로 소공이 예를 안다고 대답한 것을 두고 진나라의 사패는 공자가 사리에 공정하지 못하고 편당적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31장

공자는 남과 더불어 노래할 때에 그 사람의 노래가 좋으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부르게 하고 난 뒤에 같이 노래하였다.

[원문]

子與人歌而善이어든 必使反之하시고 而後和之러시다.

[자여인가이선이어든 필사반지하시고 이후화지러시다.]

[이해]

반복하여 부르게 시킨 것은 그 노래 중의 좋은 점을 자세한데까지 터득하려함이고 자신이 함께 노래 부르게 한 것은 좋은 점을 얻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32장

공자가 말하였다. "학문의 정진에 막힘이 없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만 군자의도를 몸소 실행함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 체득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원문]

子曰文莫은 吾猶人也나 躬行君子는 則吾未之有得이라.[자왈문막은 오유인야나 궁행군자는 즉오미지유득이라.]

[이해]

공자가 스스로를 겸하[謙下]하면서까지 지식을 터득하는 것보다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겨 행하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제33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성인과 인자의 행동과 같음이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만 성인과 인자의 도리를 실천하는데 물리지 않으며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는다고 말하기에 가능할 정도이다."공서화가 마하였다. "오직 그것만도 저희들은 능히 올바로 배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문]

子曰 若聖與仁은 則吾豈敢이리오 抑爲之不厭하며 誨人不倦을 則可謂云爾已의니라 公西華曰 正唯弟子가 不能學也로소이다.

[자왈 약성여인은 즉오기감이리오 억위지불염하며 희민불권을 즉가위운이이의니라 공서화왈 정유제자가불능학야로소이다.]

[이해]

이 대목 또한 공자가 스스로겸사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34장

공자[孔子]가 병이 나서 앓자 자로[子路]가 기도를 올리자고 청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그러면 전례가 있었느냐?"자로가 대답하였다. "있었습니다. 기도문의 말은, 너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 신명하게 비노라 이었습니다."공자가 말하였다. "나도 그러한 기도를 한지는 오래 되었다."

[원문]

子疾病이시거늘 子路請禱하되 子曰有諸아 子路大曰 有之하니 賴曰 禱爾于上下神祇라더이다 子曰 丘之禱久矣니라.

[자질병이시거늘 자로청도하되 자왈유제아 자로대왈 유지하니 뢰왈 도이우상하신기라더이다 자왈 구지도구의니라.]

[이해]

심하게 병을 앓고 있는 공자[孔子]가 안타까워진 우직한 자로가 천지의 귀신에게 빌어서 도액하기를 청한 것인데 공자는 하늘과 땅에 신명에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 온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굳이 의식을 차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넌드시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특 별 기 고 〈66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18〉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2. 연개소문이 귀국 후의 내외정세

연개소문이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때는 대개 서기 616년경이다. 중국 수(隋) 양제(煬帝)는 살수(薩水)에서 을지문덕(乙支文德)에게 패귀(敗歸)한 신하 우문화(宇文化)에게 참살(慘殺)을 당하니 사방(四方)에서 군웅(群雄)이 병기(竝起)하여 서로 강약(强弱) 아투어서 전중국(全中國)이 모두 진동(震動)하여 우글걸이다가 미기(未幾)에 전술(前述)한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이 기부(其夫:그 아버지) 이연(李淵)을 협박(脅迫)하여 반란(叛亂)을 이르켜(일으켜) 군웅을 토멸(討滅)하고 드데여(드디어) 기부를 추대(推戴)하여 당(唐)나라 황제(皇帝)를 삼은 후 얼마되지 않아서 당태종이 그 형(兄) 건성(建成)과 그 제(弟) 원길(元吉)의 쟁권(爭權)함을 원(怨)하여 건성과 원길을 살(殺)한 뒤에 그 아버지를 박(迫)하여 제위(帝位)를 빼았어 스사(스)로 황제가 되고 연호(年號)를 정관(貞觀)이라 칭하였다.

그 후 약15년 간 한편으로는 정벌(征伐)에 힘쓰고 한편으로는 명신(名臣) 현상(賢相)을 등용해서 정치를 개혁하고 각종 문화사업을 진흥하는 동시에 국가사회주의 실행하여 국네토지를 모두 국유(國有)를 맨드러(만들어) 백성에게 평균분배하여 군대(軍隊)는 16위(衛)를 건립(建立)하고 고구려의 징병제도(徵兵制度)를 참작(參酌)하여 상비병(常備兵)이 외에 후비병(後備兵)을 두고, 전 국민은 매년 농사하는 틈(틈)을 타서 훈련을 실시하고 이청(李淸) 설인귀(薛仁貴) 등 비장(備將)으로 하여금 돌궐(突闕;지금의 몽고蒙古) 고창(高昌)토곡혼(土谷渾)(지금의 서장西藏) 등지를 정복하여 문치(文治) 무공(武功)이 모두 혁혁(赫赫)하였다. 이것이 소위(所謂) '貞觀의 治' 라고 떠드는 것이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귀국 후 약 26년 동안에 고구려의 내정(內情)은 여하(如何)히 되었는가. 당시 왕제(王弟) 건무(建武)는 을지문덕과 함께 수병(隋나라 兵)을 처물이친(쳐물리친) 양대원훈(兩大元勳)이지 마는 을지문덕은 북진남수(北進南守; 북쪽으로는 진격하고 남족으로는 수비)주의를 주장하고, 건무는 북수남진주의를 주장하여 양자가 서로 정견(政見)을 다투드니 영양왕(嬰陽王)이 죽고 건무(즉, 영유왕榮留王)가 즉위(서기 619년)하여 더욱 그 주위를 고집하므로 수당(隋唐) 양국이 흥망하는 사이에, 을지문덕 일파가 그 기회를 타서 서북(西北)으로 강토(疆土)를 널이자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왕이 덧(듣)지 않고 돌이여 당(唐)에 사자(使者)를 보내서 화친(和親)을 맺은 후, 수말(隋末)에 포로(捕虜)로 잡은 중국인을 송환하고 신라(新羅)와 백제(百濟)에는 전력(專力)으로 정벌을 가했다.

이에 (연)개소문은 이로(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말하되 '고구려(高句麗)의 대환(大患)은 오직 당나라이지 절대로 신라와 백제가 않인(아닌) 것이다. 과거 신라와 백제가 비록 동맹하고 우리나라 토지를 침략한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세가 변하여 신라와 백제의 사이에 원구(怨仇)가 서로 같어저(아져)서 화평해결(和平解決)할 여망(餘望)이 없은 즉 우리국가는 반드시 남방에 견제(牽制)의 책(策)을 써어 신라와 동맹하여 백제를 '막든지 또는 백제와 동맹하여 신라를' 막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만일(萬一)이 양책(兩策) 중에서 일책(一策)을 쓴다면 양국(兩國)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서 당(唐)과 결전(決戰)함이 가(可)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말하되 당나라는 우리국가와 어느대를 물론(勿論)하고 세불양립(勢不兩立)이다. 이것은 왕사(往事:지난 일들)를 감(鑑:거울로 삼아)하여 명백(明白)한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왕년(往年) 기백만(幾百萬) 수병(隋兵)들을 격파(擊破)하든(던) 때에 대병(大兵)을 출(出)하여 그 난(亂)을 정벌하였으면 평정(平定)하기 쉬웠을 것인데, 이 천재일촌(千載一忖)의 호기회(好機會)를 이흠(잃음)이 실(實)로 애국지사들의 통한(痛恨)할 바이며, 또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느진(늦은) 감(感)이 있으나 피국(彼國:저 나라;당나라) 이가(李家)의 형제가 불목(不睦)하여 건성은 세민을 죽이려하고, 세민을 건성을 죽이냐 하는데 그 아비 이연이 혼우(昏愚)하여 양자(兩子;두 아들) 간(間;사이)에서 유예미결(猶豫未決;오히려 미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 우리 국가가 있(이)때에 대병으로 피국을 친다면 건성이 반(叛)하여 우리나라에 부(附;붙을)할 것이다. 해혹(該或; 혹여) 그러치(그렇지) 않을 지라도 피(彼)가 수말(隋末)의 대패(大敗)와 또 연연(年年;해마다) 화란(禍亂)의 뒤를 이어 민력(民力)이 아직 회복(恢復)치 못하여 반드시 전쟁할 여력(餘力) 없을 것이니 비상한 호기회라 한다. 만약 그 형제 양인 중에서 한사람이 패사(敗死)하고 일인(一人) 전권집정(專權執政)하여 노력이 통일된 후에는 폐정(弊政)을 고치고 군제(軍制)를 개혁하여 강병(强兵) 육성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한다면 그 토지의 대(大) 인구(人口)의 중(衆) 모두 저들에게 불급(不及)하니 고구려가 무엇으로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을까. 국가흥망의 여부(與否)가 오직 여게(기)에 있는데, 군신군상(群臣軍相)들이 이것을 아는 자가 없으니, 었지(어찌) 한심(寒心)하고 통탄(痛嘆)할가 아니리오 하고, 정당론(征唐論; 당나라를 정벌하자는 논의)을 극력 주장하나 영류왕과 그 대신(大臣)들이 이를 듣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正巖 權爀彩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治政篇 解說 (1)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정치는 사회(社會)의 질서(秩序)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便安)하고 행복(幸福)하게 하기 위한 다스림이다. 밝은 정치(政治)가 행하여지는 나라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으며, 정치가 어지러우면 백성들의 삶 또한 어지러워지기 마련이다.고로 정사(政事)를 맡은 벼슬아치들은 항상 백성을 위하는 신념(信念)으로 정치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개인의 의사(意思)나 고집(固執)보다는 백성의 소리를 잘 경청(傾聽)하여야 한다.

●明道先生이 曰(명도선생이 왈)一命之士(일명지사)苟有存心於愛物(구유존심어애물)이면 於人(어인)에 必有所濟(필유소제)니라.

해설 : 명도선생이 말하기를,"처음으로 벼슬을 얻은 선비라도 진실로 물건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쓴다면 남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는바가 있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 명도선생(明道先生):(1032－1085)은 북송(北宋)의 유학자(儒學者)로, 姓은 정(程), 이름은 호(顥), 자는 백순(伯淳)이며 호는 명도(明道)이다. 북송(北宋)의 유학자(儒學者) 주돈(周敦頤)의 문하에서 수학(受學)했으며 성리학(性理學)을 크게 발전(發展) 시켰다. 성리학(性理學)은 주자(朱子)에 이르러 대성(大成)을 보았기 때문에 정주학(程朱學)이라고도 불리 워진다. 도학(道學)에 밝다고 하여 사람들로 부터 명도선생(明道先生)이라고 일컬어지며 또 그의 아우 정이(程頤)와 함께 이정자(二程子)라고도 불리워 진다. 명도선생(明道先生)은 우주(宇宙)와 사람의 본성(本性)은 본래(本來)동일(同一)한 것이라고 주장(主張)한 사람이다.

일명지사(一命之士) ⇒ 처음으로 관직을 임명 받은 선비, 존심(存心) ⇒ 마음을 두는 것, 苟→진실로 구,소제(所濟)→구제하는 바,도움되는 바, 濟→건널 제,건질 제, 구제할 제.

●唐太宗 御製에 云(당태종 어제에 운)上有麾之(상유휘지)하고 中有乘之(중유승지)하고 下有附之(하유부지)하여 幣帛衣之(폐백의지)요, 倉廩食之(창늠식지)하니 爾俸爾祿(이봉이록)이 民膏民脂(민고민지)니라. 下民(하민)은 易虐(이학)이어니와 上蒼(상창)은 難欺(난기)니라.

해설 : 당태종 어제에 이르기를, "위에는 명령하는 이가 있고, 중간에는 명을 받들어 다스리는 관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서 받은 비단으로 옷 지어 입고 곳간에 있는 곡식을 먹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봉록(俸祿)은 모두 백성들의 기름인 것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학대하기가 쉽지만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은 속이기 어려우니라)"고 하셨다.

참고:당태종(唐太宗 : 598－648)는 唐나라의 제2대 임금이다. 이름은 이세민(李世民)이며, 아버지 이연(李淵)을 도와서 수나라를 치고 당나라를 세웠음. 당태종은 백성을 몹시 사랑했다. 황충(蝗蟲)이 번성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크게 되자 태종은 황충을 잡아 씹으면서 경계하였더니 황충이 사라져버렸다는 설화가 있다. 당태종 때의 연호가 정관(貞觀)으로서 당태종의 정치를 찬양하여 정관지치(貞觀之治)라고 한다.

麾→두를 휘, 대장기 휘,⇒(지휘하는 것). 唐→나라 당. 宗→마루 종. 製→지을 제. 乘→탈 승, →다스릴 승. 유승지(有乘之) ⇒명령 받들어 다스리는 것. 附→붙을 부, 의지할 부, 따를 부. 幣→폐백 폐,돈 폐, 재물 폐. 帛→비단 백. 폐백(幣帛) ⇒예물로 받은 비단. 廩→곳간 늠(름), →창름(倉廩) ⇒곳간, 곡식을 쌓아두는 곳. 爾→너 이. 俸→녹 봉. 祿→녹 녹. 이봉이록(爾俸爾祿) ⇒너희들의 봉록. 膏→기름 고, 脂→기름지, 이학(易虐) ⇒학대하기 쉬운 것.易 쉬울 이,(바꿀 역), 虐→사나울 학, 모질 학.상창(上蒼) ⇒위에 있는 푸른 하늘.난기(難欺) ⇒속이기 어려움. 難→어려울 난(란). 欺→속일 기.

●童蒙訓에 曰(동몽훈에 왈)當官之法(당관지법)이 唯有三事(유유삼사)하니 曰 淸曰愼曰勤(왈 청왈신왈근)이라 知此三者(지차삼자)면 知所以持身矣(지소이지신의)니라.

해설 : 동몽훈에 이르기를 "벼슬아치 된 자의 지켜야 할 법은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 가질 바를 알리라." 고 하였다.

●當官者(당관자)는 必以暴怒爲戒(필이폭노위계)하여 事有不可(사유불가)어든 當詳處之(당상처지)면 必無不中(필무부중)이어니와 若先暴怒(약선폭로)면 只能自害(지능자해)라 豈能害人(기능해인)이리오.

해설 :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나치게 화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화부터 먼저 낸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요.

참고 : 동몽훈(童蒙訓) ⇒송(宋)나라 때 여본중(呂本中)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책이다. 童→아이 동. 蒙→어릴 몽. 持→가질 지. 唯→오직 유. 愼→삼가할 신,정성스러울 신. 勤→부지런할 근. 暴→드러날 폭, 사나울 폭. 怒→성낼 노, 화낼 노. 戒→경계할 계. 詳→자상할 상. 處→곳 처. 詳處之(상처지) ⇒자상하게 처리하는 것. 只→다만 지. 豈→어찌기. 能"능할 능. 害→해할 해.